



주제천(69)씨가 29일 광주시 북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어르신을 상대로 약손 요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제공>

폭염 기승

한낮 외출 삼가... 옷은 얇고 헐렁하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노인층 건강관리 당부

노인들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힘들어하고 있다. 보건당국도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야외 활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인들은 무더위에 대비해 폭염 대응 안전수칙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령층의 경우 땀샘이 줄어들어 땀 배출량이 적고 체온을 조절하거나 탈수를 감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경우 무더위로 증상이 악화하기 쉽다. 따라서 한낮(정오~오후 5시)에는 외출이나 논·밭일, 비닐하우스 작업을 삼가고 외출을 해야 할 경우 헐렁한 옷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와 물병을 휴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아울러 전국 보건소의 방문 건강관리 전문인력을 활용,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폭염대비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노인돌봄비가 즉시 독거노인을 방문하거나 전화해 야외활동 자제를 조언하기로 했다.

또 노인이 많이 이용하는 광주·전남 경로당 등 전국 6만2000곳과 노인복지관 300여 곳에 무더위 행동요령 포스터를 배포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더운 시간대의 논·밭·비닐하우스의 작업을 자제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거리에 방치된 노숙인과 좁은 생활공간에서 생활하는 쪽방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종합지원센터·일시보호시설·노숙인자활시설·쪽방상담소를 노숙인과 쪽방 주민의 피서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온열질환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열사병, 열실신 등에 걸려 보고된 온열질환자는 총 3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113명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손끝으로 마음 전하며 어르신 말벗까지

매주 복지관 찾아 약손요법 봉사 주제천 씨

“건강 허락할 때까지 활동... 나눔은 내 자신 위한 것”

“제가 배운 약손 요법으로 어르신들 허리·다리 주물러 드리는데, 어르신들이 시원한 표정을 지으면 제 기분도 덩달아 좋아집니다. 힘든 것, 전혀 없어요.”

칠순(七旬)을 앞두고 매주 노인복지관을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평소 배운 약손 요법을 해주면서 말벗이 돼 주는 등 꾸준하게 봉사활동을 펴온 이가 있다.

주인공은 주제천(69·광주시 북구 용봉동)씨다. 그는 일주일에 세 차례씩 북구 노인종합복지관·광주공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손 요법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하루 평균 2시간30분씩 어르신들의 허리·다리·종아리를 주물러주면서 말벗도 해주고 있다. 그는 평소 사는 이야기부터 지식들·친구들·지인들 등 자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어르신들과 나눈다.

어르신 한 명당 15분씩 15명~18명 정도 약손 요법을 해주는데, 그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남에게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가 약손 요법을 배우는 올해로 딱 10년 째. 자영업을 해온 그는 지난 2000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문을 닫아야할 형편에 처했다. 그에게 시련이 찾아왔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약손 요법을 배우기로 마음 먹었다. 힘든 약손 요법을 배우기 위해선 건강도 챙겨야 했다.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난 뒤 기(氣)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다. 소식(小食)도 병

행했다.

칠순을 앞둔 그이지만, 건강 덕분에 2시간30분씩 약손 요법 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전혀 지치지 않는다. 그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약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인기도 대단하다.

그가 북구노인종합복지관·광주공원을 오는 날이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봉사를 받으려고 줄을 설 정도다. 그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오느냐”고 묻는 어르신들도 일부 있다.

그는 “나이가 들면서 무언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찾던 중 약손 요법을 공부하게 됐다”며 “처음엔 어르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배웠는데, 체력이 달린 어르신들이 직접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약손 요법을 받은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좋다’고 웃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일하면서 겪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각양각색이다.

약손 요법을 받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도 자리를 뜨지 않는 어르신도 있는가 하면, 서로 먼저 받으려고 아우다들하는 어

르신들까지 다양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도 작은 고민이 있다. 북구노인종합복지관·광주공원을 찾을 때마다 애써 줄을 서서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대략 30명가량 되는데, 이들에게 약손 요법 봉사를 다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는 한 어르신이라도 봉사를 더 해주기 위해 무척 애를 쓰지만,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약손 요법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그는 요즘 인생이 즐겁다.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자신을 찾아주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손 요법은 내 손끝에 좋은 마음을 실어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인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겠느냐.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다 보니,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다”며 “비록 나이는 칠순을 앞두고 있지만 나를 부르는 곳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나설 것이다. 말이 봉사활동이지, 정작 내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흐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옴 비상

전염성 높은 피부질환... 노인층 확산

증상 유무 상관없이 가족·접촉한 사람 같이 치료

노인층에 ‘옴’ 비상이 걸렸다. 지난 1970~80년대 유행하던 대표적 후진국형 피부질환인 ‘옴’이 다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옴 진단기가 20도 이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은 점에서 여름철 노인들 위생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30일 내놓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7~2011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에 따르면 옴 환자는 지난 2007년 3만6688명에서 지난 2011년 5만2560명으로 급증했다. 무려 43.3%가 늘어난 수치로, 인구 10만명당 환자도 지난 2007년 77명에서 지난 2011년 107명으로 늘어났다.

옴은 옴 진드기가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피부질환으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 발생하는 병이다.

특히 노인 환자 비중이 컸다. 80세 이상이 인구 10만 명당 447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149명, 50대가 115명 등의 순이었다.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인구 10만명당 옴 환자 증가율이 연평균 31.6%에 달했고 70대는 매년 20.2%, 60대는 19.6%씩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위생 수준이 좋아졌음에도 ‘옴’ 환자가 늘는 이유를 놓고 전문가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이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증상이 없더라도 환자는 물론 환자의 가족 등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액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액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액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제진행중이거나 정치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재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팔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암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
Goodboodongsan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모집

굿부동산저널과 함께 성장해나갈 부동산공인중개사 여러분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 본부장, 지사장, 기자
- 지 역 : 전국을 비롯 광주 전남 각 시·군·구
- 자 격 : - 부동산중개업 경력 3년 이상
-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
- 인 원 : ○○명
- 제출서류 : 이력서, 등본, 사진
- 기 간 : 2013. 7. 16 ~ 8. 20까지
- 특 전 : 각 지사 지면 2page 배정

문의 : (062) 673-5255 / FAX : 674-5255 / E-mail : cws2344@hanmail.net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40 www.goodboodongsan.com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상가건물 매 28억(보2.8억/월1,600만)
- ▷첨단 중심상권 상가건물 18억, 21억, 30억 외 다수
- ▷월산동 대로변 6층건물 매14.5억(보2.8억/월810만)
- ▷두암동 5층건물 매 8.5억
- ▷동천동 공장·창고 임대(대1300㎡, 건400㎡) 보2천 월3백만

대지/전답

- ▷나주시 평산동 446-7 일대 배과수원 13,727㎡(4,150평) 매매가 협의
- ▷완도군 약산면 토지 3,160평(신축주택포함, 펜션등 다용도로 이용가)
-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토지 1,050평 1.8억(펜션 요양시설 적합)
- ▷장성군 삼계면 대지 외 4130㎡(1,250평) 1.7억
- ▷장흥군 장평면 전원주택(660㎡, 전13,165㎡ 포함) 3.5억
- ▷신항동 창고용지(생산특지) 1980㎡(600평) 매매가 협의
- ▷수원지구 원룸부지 323㎡(98평)

기타

- ▷첨단 메인대로변 구분점포 150㎡ 매매8.5억
- ▷첨단 중심대로변 1층 상가 578㎡(175평) 임대 보10억 월 1,200만
- ▷전남 나주시 문평면 국도1호선 주유소 7억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광주 전남권 매도 매수 물건 접수 환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